

# 圖書館奉仕의 變化를 決定하는 要因에 대한 考察

崔 成 眞\*

## <목 차>

- |                      |                       |
|----------------------|-----------------------|
| 1. 序論                | 3. 3. 他 情報傳達機關과의 境界變動 |
| 2. 圖書館은 社會의 情報傳達機關   | 3. 4. 圖書館相互協調關係       |
| 3. 圖書館 變化에 考慮해야 할 要因 | 3. 5. 圖書館學 理論의 發達     |
| 3. 1. 要求의 變化         | 4. 結 論                |
| 3. 2. 情報의 變化         |                       |

## 1. 序 論

우리 주변에는 대소간 너무 많은 社會機關들이 活動하고있어 이들 하나하나가 다 社會에 어떤 有益한 行爲를 하기 위해 생겨났다는 사실을 認識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 이들 機關은 特定 社會問題가 일어났을 때 그것의 解決者로서 나타난 것이다. 初期에는 본래의 使命에 충실하지만 이들 중에는 時間이 흐름에 따라 점점 그 使命을 잊어버리고 自體의 保存이나 擴張에 주된 관심을 기울이는 말하자면 社會福利와는 關係가 적은 機關으로 타락하는 것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타락은 보통 한 機關이 밖으로 向하던 關心을 안으로 돌릴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즉 機關 外部의(다른 사람들의)문제 해결에 진력하던 活動이 줄어들고 機關內部의(自己들의)문제 해결에 큰 힘을 쓰게 된다면 타락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圖書館을 포함하여 모든 社會의 從屬機關들이 그 繼續的 存在를 正當化하기 위해서는 不斷히 自體와 社會的 効用性을 調査評價하고, 外部目標의 成就方法을 改善하기 위한 研究檢討를 日常活動化해야한다. 機關內部에서 아무리 社會福利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굳게 믿

\* 成均館大學校圖書館學科 副教授

더라도 그것은 主觀的判斷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므로 客觀的調查 評價의 必要性은 여전히 남는 것이다.” 모든 사회기관은 그 근본이 人間의 集團的 行爲의 手段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다 特定한 目的이나 社會的으로 有益한 機能을 하기위해 組織되었고 各各 特有한 日常活動의 節次와 方法을 通해 目的에 到達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한 機關들이 社會的으로 올바르게 機能하기 위해서는 日常活動의 節次와 方法이 신빙도 높고 능률적인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商業機關이든 奉仕機關이든 또는 그밖의 어떤 社會機關이든 그것이 命脈을 維持하고 活動을 계속하려면 그 時代에 有益한 目標과 能率的活動構造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社會機關의 資格에 대한 最終 審判者는 民主社會에 있어서는 “支持者”라 할 수 있다. 萬一 어떤 商業機關이 쓸모없는 製品을 만들어 판다면 고객(支持者)을 잃고 未久에 破産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奉仕機關의 目標이 時代에 맞지 않는다면 早晚間 그 支持者는 財政的 支援을 포함한 모든 支援을 中斷하겠다고 위협할 것이다. 이러한 機關 앞에는 다만 두 가지 선택이 있을 뿐이다. 自體 評價를 다시하여 社會的으로 有用한 機關이 되든가, 아니면 망하든가 하는 것이다.

本 考察의 目的은 圖書館이 自體評價를 하여 時流에 맞게 奉仕하는 有用한 社會機關으로 變化하는데 있어 重要視되어야 할 要因들을 分析抽出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 2. 圖書館은 社會의 情報傳達機關

圖書館은 社會의 한 從屬機關이며 同時에 情報傳達機關이라는 兩面性이 있다. 앞서서도 指摘한 바와 같이 圖書館은 한 從屬機關이므로 不斷히 自體의 社會的 效用性을 調查評價하고 時代에 適合한 奉仕를 하기위해 그 構造와 奉仕方法 등을 變形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不斷한” 變化論에 애당초 찬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무슨 變化이든 공포감이 수반되고 다소의 저항이나 경계가 일어남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므로 어떤 때 어떤 곳에서나 變化를 싫어하는 사람은 있다고 보아야 한다. 特히 不變의 志操를 높이 評價하

1) L.T. Wilkins, *Social Deviance, Social Policy, Action and Research*,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65, pp.5—6.

고 機會主義가 惡德視되는 우리 나라같은 保守社會에서는 變化란 매우 힘들고 勇氣를 要하는 일이다. 이십년 또는 삼십년 전에 비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오늘의 우리도서관 면모가 이를 입증한다고 본다. 그러나 圖書館奉仕는 그 內容과 形態가 반드시 그리고 不斷히 變해야 한다. 이를 論證하려면 다시 圖書館의 社會的位置에 대한 考察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社會 안에는 많은 機關들이있어 各樣各色活動을 하고있으나 이들은 다 社會全構成員(全人類)의 福利 向上을 目的으로 獨立의인 活動을 하는 機關(institution)과 그런 獨立 機關을 母機關으로 삼고 그 目的 成就를 위해 정해진 小 目的들을 이루려고 각각 特定 分野活動을 擔當한 機關(agency)으로 二大別 될수 있다. 어떤 이는 公共圖書館이 前者에 屬한다고하나<sup>2)</sup> 적어도 大學圖書館, 特殊圖書館 等 나머지 館種들은 다 後者에 屬한다고 할 수 있다. 또 公共圖書館의 例外를 認定한다하더라도 모든 圖書館이 합하여 하나의 現代圖書館構造를 이루며 社會 神經系統으로서 構成員들을 結束하여 目標成就에 몰아세우는 機能面으로 볼 때 한마디로 圖書館은 社會從屬機關(social agency)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記錄을 통한 社會의 情報傳達過程을 맡은 한 機關이자 그 過程 心臟部에 해당되는 마디이다. 圖書館은 또한 社會안의 個人, 集團, 活動單位들 사이를 關係지어주고 相互 協調하여 共同目標 成就에 效果的으로 動員토록 支援機能을 하는 것이다. 圖書館資料에 依한 情報傳達를 통해 人類의 記憶을 現代 個人이나 集團의 意識속에 넣어줌으로 各 時代를 過去의 文化에 이어주고, 한편 現代에 있어서 空間을 克服한 個人間的 對話를 可能케함으로 “世界家族”이란 人類 理想의 구현을 돕는 圖書館은 오늘날도 變함없이 중요한 從屬機關중 하나인 것이다.

圖書館이 各時代에 행한 役割은 모두 그 時代(社會)의 必要에 따라 決定된 것이었다. 勿論 그 役割중에는 現實問題와 크게 관련되지 아니한, 圖書館先覺者들의 個人的 信念이나 情熱에서 비롯된 것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sup>3)</sup> 그러나 대체로 말해서 社會機關이란 人間이 特定目標를 成就하기위해 集團으로 活動함에 있어 편의상 만들어낸 道具이므로 어떠한 役割을 맡든 그것을 감

2) Jesse H. Shera, *Foundations of the Public Libra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9.

3) 椎名六郎, 新圖書館學概論, 東京, 學藝圖書, 1973, pp.72-94.

당하기만하면 곧 社會에 공헌하는 길로 통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한 社會從屬機關이 나서 없어질 때까지, 꼭 붙어 떨어질 수 없는 그런 萬古不變의 役割이나 或은 合理的 絕對的 役割같은 것은 없다. 그 時代, 그 社會 사람들의 必要와 期待가 있을 뿐이다. 이와같이 必要에 따라 決定된 役割이므로 그 必要가 變하면 그 役割과 方法이 變해야 마땅한 것이다. 圖書館 半萬年 歷史를 通하여 이 원칙은 어느 時代에 있어서나 지켜졌음을 본다.<sup>4)</sup> 專制君主時代의 圖書館, 文藝復興期の 圖書館, 崇儒時代의 圖書館, 開化期の 圖書館이다 자기 그 時代의 必要에 副應하는 內容과 方法의 奉仕를 한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社會的 同意가 어떤 機關의 役割, 目標, 方法을 決定하는 至上的 權威인 것이다. 過去의 圖書館位置와 奉仕를 決定한 것처럼 未來圖書館의 그것들을 決定하는 것 또한 社會일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여기 社會機關의 社會啓蒙性이나 嚮導性이 問題되나 이에 대한 考察은 後日로 미룬다. 다만 한 가지 記憶하고 지나가야 할 사실은 어떤 社會이든 그 目標은 社會自體가 정한 다음 여러 從屬機關을 驅使하여 成就한다는 原理이다.<sup>7)</sup>

이와 같이 圖書館은 社會從屬機關의 性格으로해서 時代의 要求에 따라 變할 수밖에 없지만 本章 서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圖書館에는 情報傳達機能을 한다는 일면이 있고 그로부터 오는 變化에 대한 壓迫이 또한 있다. 情報(知識)은 본래 研究者의 頭腦 속에 추상적개념 형태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傳達할 때 쓰이는 媒體는 情報傳達 機關으로서의 圖書館 奉仕 스타일과 밀접한 關係가 있다. 이 媒體는 歷史的으로 보면 原始時代의 音聲, 몸짓으로부터 여러 가지 文字 및 記錄材料의 發達段階를 거쳐 오늘 날 記號, 電波에 이르기까지 高度로 발달되고 또 多樣化되었다. 媒體의 生産이 大量化되고, 社會 部門別로 자기 自己 部門 情報性質에 適合한 媒體를 開發하여 쓰게되면서 媒體를 利用하는 사람들의 習性도 變해 왔다. 그러므로 媒體의 變化가 궁극적으로 圖書館奉仕 방식의 適應(變化)을 要求함은 당연한 論理的귀결이라 할 수

4) *Ibid.*, pp.30—59.

5) 草野正名, 圖書館學原論, 東京, 內田老鶴閣新社, 1967, pp.1—10.

6) Jesse H. Shera, *The Foundations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New York, Wiley, 1972, Chapter 5, "The Role of the Library in the Social Process," pp.135—62.

7) *Ibid.*, p.136. (A society,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creates its own goals, and that these establish the outer boundaries within which any agency must operate.)

있다. 情報量이 얼마되지 않던 때와 미처처리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때, 情報內容이 一般的이어서 理解하기 어렵잖던 때와 專門化되어 難解한 때, 도서관 봉사방식이 한결 같을 수가 없다. 情報內容의 部門別比率이 社會的으로 急變할 때 圖書館이 또한 影響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듯 情報傳達機關으로서의 圖書館은 “情報” 및 “傳達” 側面으로부터 오는 變化 압박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 그것이 社會要求에 대해 無軌道한 變化를 하지 못하도록 自體를 制御하는 要因이 되기도 한다. 圖書館이 아무리 時代的 必要에 敏感하고 進步的이라해도 圖書館本來의 領域을 비약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圖書館이 映畫館이나 實驗室 또는 그와 類似한 場所가 될 수는 없다. 情報傳達機關인 圖書館은 어디까지나 情報의 記錄物 即 資料를 수집 정리하여 必要로 하는 사람에게 提供하는 것으로 本領을 삼아야한다. 그것은 圖書館 歷史始作때부터 지금까지 一貫된 圖書館 認識의 概念이었으며 또 앞으로도 그래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問題는 다만 “어떤” 資料를 “어떻게” 提供할 것인가가 언제나 새로와야 (變化해야)하는 것 뿐이다.

圖書館이 外部의 變化에 따라 內部를 變化시켜가야한다지만 아무렇게나 바꾸 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올바르게 변하여 전보다 社會的 効用性을 높였을 때라야 變化의 意義가 있는 것이다. 도서관이 올바르게 변하려면 어떤 점들을 특히 檢討해야하는가? 이하에 도서관 변화의 결정요인에 대하여 논하려고 한다.

### 3. 圖書館變化에 考慮해야 할 要因

圖書館의 自體 評價는 다음 세가지 質問을 던짐으로 始作할 수 있을 것이다.

- 가. 圖書館이 지금 갑자기 이 社會에서 없어지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困難해질 것인가?
  - 나. 圖書館의 現行 機能을 바꾸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 다. 現在 圖書館을 支援하는것으로 어떤 社會機關이 있는가? 圖書館奉仕內容과 重複되는 사업을 하는 社會機關은 없는가?
- 이 세 질문에 답하는 가운데 圖書館은 變化의 必要與否를 確認하고 다음

段階로 옮겨 變化의 要因分析 및 檢討에 着手해야 할 것이다.

### 3. 1. 要求의 變化

圖書館奉仕의 變化에 있어 영향을 주는 最大 要因은 要求의 變化라 할 수 있다. 圖書館奉仕의 特徵은 要求에 응답하는 受動的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圖書館에 대한 過去의 要求와 그 응답인 傳統的奉仕方式을 考察하더라도 分明한 일이다. 歷史的으로 보면 圖書館은 資料를 책(物體)으로서 保存하였다가 再利用하는데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므로 圖書館業務는 要求에 대하여 受動的이고 奉仕方式은 靜的인 것이었다. 傳統的으로 도서관자료의 大部分은 人文·社會科學分野의 것이었고 또 도서관은 그런 奉仕對象으로 滿足해 왔다. 紀元前 3世紀 秦始皇때에 이미 醫術과 農事에 관한 책이 있었지만 今世紀初葉까지 그 文獻量比率에 있어 科學技術分野는 人文社會科學分野와 비교가 되지 않았다. 小數의 要求보다 多數의 要求를 우선 考慮해야하는 圖書館<sup>8)</sup>이 當時 小數인 科學 技術分野 從事者들의 需要를 輕視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는지 모른다. 1909年 美國의 존·대너(Jobn Cotton Danna)가 科學 技術 및 職業分野로 圖書館奉仕를 擴大하려고 熱誠을 기울일 때 뜻밖에 圖書館界內部的 冷待와 抵抗에 부딪쳐 마침내 그의 同調者들과 함께 美國圖書館協會를 離脫하여 特殊圖書館協會(Special Libraries Association)를 組織한 것만 보더라도 圖書館의 傳統的 偏愛를 알 수 있다. 그런데 人文 社會科學情報란 것은 大體로 受動的 靜的 奉仕스타일로 充足될 수 있는 것이다.<sup>9)</sup>

1847年에서 48年까지 2년 동안 계속된 大英博物館圖書館委員會 聽問會<sup>10)</sup>는 要求에 適合한 奉仕를 하려는 圖書館 原理의 正確한 適用 例를 남겼다. 이 聽問會는 當時의 館長이었던 파니치가 提案한 所藏資料의 著者·書名目錄作成프로젝트를 承認하느냐 아니면 大陸의 특이獨逸의 圖書館에서 널리 쓰이던 캐치 워드드目錄(catchword catalog)을 본 따 主題目錄을 만드느냐를 決

8) Maurice F. Tauber, *Technical Services in Librar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3, pp. 377-81.

9) 笠井利彦, 情報科學とライブラリー, *ドキュメンテーション研究*, 21, 12: 1971, 12, pp. 399-403.

10) Great Britain, Commissioners Appointed to Inquire into the Constitution and Government of the British Museum, *Report*, London, HMDS, 1850 ("The Panizzi Report").

定하기 위한 것이었다. 2년간이나 계속된 청문과 討論 끝에 委員會가 採擇한 것은 파니치 目錄이었다.

이 決定은 圖書館이 일찌기 利用者의 要求를 充足시키기위해 얼마나 誠實하고 賢明하게 힘써 왔는가를 보여 줄 수 있는 한 史實이라 할 수 있다. 첫째 當時의 文獻 總量이 오늘 날 같이 많지않아 圖書館을 利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自己分野의 主要 著述을 알고있었으므로 圖書館目錄을 通하여 알고자 하는 것은 단지 願하는 책이 그 도서관에 있는지 없는지였고, 둘째 當時 藏書의 大部分을 차지한 人文·社會科學 資料는 著者의 立場, 背景, 資格이 그 價値를 決定하는 것이며, 셋째 當時出版物의 支配的 形式이 單行本이어서 圖書館資料의 大部分 역시 單行本이었고, 따라서 오늘 날의 저어날 利用者들 처럼 한 자료의 特定部分을 찾는 習性은 흔하지 않았을 것이며, 넷째 採擇한 研究方法이 正常할 때 그 研究者(著者)의 知識, 經歷, 業績, 名聲보다 그 主題와 發見內容이 더 큰 關心事인 自然科學 分野 資料는 앞에서 말한대로 當時 아직도 매우 적은 藏書比率을 메우는 실정이었다. 이것이 當時 圖書館을 에워싼 條件들이었다. 그러므로 파니치의 著者·書名目錄이 主題目錄보다 當時의 要求에 더 副應하는 것이었음은 自明하다. 結局 大英博物館圖書館은 要求에 대한 誠實한 研究檢討로 바람직한 決定을 지을 수 있었다.

受動的 靜的 도서관봉사 스타일이 聲討를 받는 것은 要求가 變換 오늘의 話題이지 그것이 본래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것이 最善이었던 時代와 要求도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要求를 構成하는 要素는 무엇인가? 圖書館에 대한 要求의 要素를 주로 最近의 社會的 變形, 變化 領域을 分析하여 抽出을 試圖한다.

### 3.1.1 新興分野의 不滿

人類歷史는 時代에 따라 主役을 擔當한 階級 또는 分野가 交替되어왔음을 말해준다. 20世紀의 主役은 科學技術分野 從事者들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sup>11)</sup> 今世紀, 特히 1940年代 以來 戰時나 平和時를 막론하고 科學技術 分野活動의 重要性 및 範圍는 繼續 增大되어 왔으며 前代未聞의 進歩를 目擊하여 왔다. 科學技術 分野의 問題는 끝이 없다. 한 研究가 끝날 때마다 發

11) 惠羅嘉男, 情報システムの基礎, 東京, 日刊工業新聞社, 1971, pp.3-6.

見과 結論의 前進 完成을 위한 새로운 問題가 提示된다. 그리하여 해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科學技術 分野로 들어가 이 分野 人口는 急增 추세를 계속하고 있다.<sup>12)</sup> 最近에는 科學技術이 많은 利器와 함께 地球上으로 가져온 致命的 公害를 除去하고 環境을 保存하기위하여 이 分野 研究者들의 社會的 責任은 더욱 무거워졌다. 모든 調査研究가 그렇듯이 科學技術者들의 研究도 既存研究 實績에 크게 依存하는 바 이는 文獻調査를 통해서 可能한 것이다. 圖書館이 마땅히 이 局面의 支援 責任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前述한 바와 같이 오랫동안 圖書館은 人文社會科學徒들에 대한 奉仕에만 골몰하여 갑자기 나타난 科學技術分野 利用者들의 大量需要에 대한 응답태세가 未備하다. 이들이 要求하는 情報의 性格이 最新性, 正確性, 斷片性 등으로 해서 人文社會科學의 그것에 비해 다르므로 奉仕組織이나 方式이 또한 달라야하나 그렇지 못한다. 科學技術分野의 不滿이 있다. 新興分野가 出現하여 不公平한 條件을 불평할 때마다 圖書館의 이 調整(變化)은 不可避한 것이다. 또 그것이 社會에서 쇠퇴하거나 사라질 때 逆調整이 必要한 것도 사실이다.

### 3.1.2 資料比率의 變化

위의 사실과 關聯된 것이기는 하나 觀點을 달리해 보면 新興分野에서 만들어 내는 文獻의 增加가 圖書館奉仕의 變化를 要求하는 힘으로 作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即 既存 資料比率의 安定勢가 깨짐으로 나타나는 既存 奉仕形態의 危機인 것이다. 最近의 例를 든다면 科學技術文獻의 增加를 말할 수 있다. 이 分野 文獻의 特徵은 遠報型인 저어날, 抄錄誌, 大會記錄, 技術報告 등 非單行本資料가 支配的이라는 것이다. 오늘 날 거의 모든 圖書館에서 이런 類의 資料를 受入하며 또 受入하지 않을 수도 없는 形편이다. 科學技術資料가 他 部門 資料보다 많은 圖書館도 얼마든지 있다. 非單行本資料가 圖書館 안에 여러 가지 問題를 일으킨다고 하지만<sup>13)</sup> 이는 適時適切하게 그 處理 및 奉仕方法을 研究 採擇하지 못한 自體에 責任이 있다고 할 수 있다. 資料形態의 還元을 바랄 수 없을 때인 오직 한 길, 도서관이 資料變化에 適應하는 길밖

12) 宮崎晴, “情報處理技術者の教育について,” *オペレーションリサーチ*, 17, 5:1972, 5.

13) Mary Duncan Carter and Wallace John Bonk, *Building Library Collections*, 3d ed., Matuchen, N.J., Scarecrow, 1968, pp.91—101.



에 없는 것이다. 資料比率의 變化가 圖書館奉仕의 變化에 影響하는 까닭은 도서관자료가 部門에 따라 特有한 형태를 가지며 奉仕方法이나 組織이 資料形態와 밀접한 關係를 가지기 때문이다.

### 3.1.3. 研究方法의 變化

圖書館資料 利用에 있어서 研究者를 돕는 일은 圖書館奉仕의 한 重要部分이다. 이 部分의 機能을 効果的으로 하자면 研究者의 研究方法를 알아야 한다. 모든 경우를 일일이 알 수 없다면 적어도 一般的 傾向이라도 파악해야 할 것이다. 研究方法의 경향 파악은 쉬운 일이 아니며 主題 背景과 研究 經歷을 要하는 것이지만 利用者와의 밀접한 接觸을 통해서 어느정도 가능할 것이다. 예를 다시 오늘의 周邊에서 찾는다면 自然科學의 研究方法의 普及를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自然科學에 關한 著述에 있어서는 著者の 資格이나 이전 업적보다 研究方法이나 利用된 機械가 더 문제되는 수가 흔히 있다. 말하자면 오늘 날 著述 內容에 대한 責任에 있어서 資料에 따라서는 著者の 位置가 多少 낮은 수가 있다. 적어도 종래와 같이 千篇일률적으로 著述 內容에 대한 責任은 全的으로 著者에게 있으니 圖書館目錄構造의 基本은 著者目錄이어야 한다는 論據는 不安하게 되었다. 실제로 館種에 따라서는 主題에 依한 資料接近이 더 重要視되는데 우리나라 專門圖書館의 大部分도 西洋資料外에는 主題目錄이 備置되어 있지 않다. 調査 研究 課題를 맡은 사람이나 特定 情報을 원하는 利用者は 진같이 원하는 資料의 所藏 有無나 가려주는 著者·書名目錄에 만족하지 않고 積極的으로 원할만한 어떤 資料들이 所藏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主題目錄, 主題索引, 主題別書誌 등이 있었으면 할 것이다. 主題目錄 代用이 될 分類目錄이 備置된 圖書館이 있기는하나 分類表의 體系에 따라 目錄組織이 달라져 圖書館間에 統一性を 缺如하고 또 利用者が 目錄의 基礎가 된 分類表의 組織을 이해해야 利用에 편리하다는 短點이 있어 要求에 대한 完全한 해답이라 할 수 없다. 요컨대 研究方法의 變化는 주로 資料接近의 方法을 變化시켜 全體 圖書館奉仕 스타일 變化에 影響하는 것이다.

### 3.1.4. 教育水準의 變化

이제 中等教育이나 高等教育이 옛날처럼 少數 特權層의 獨占物이었던 時代는 지났다. 文盲率은 急速히 줄어 들고 있으며 國民 大部分이 상당한 水準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1971년도 公式統計에 나타난 숫자를 보면 우리나라에는 高等教育機關만도 703個가 있다. 이것은 8.15해방 당시 19 個의 高等教育機關에서 7,819名의 學生들이 공부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비교해 볼 때 실로 長足の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特히 公共圖書館의 奉仕內容과 스타일의 反省을 要求한다. 1930年代나 40年代에 初等教育 6年(或은 4年)을 필하였거나 간신히 讀解力을 얻은 사람들에게 繼續的 公民教育의 使命을 가진 公共圖書館이 있었는데 그것과 別로 달라진 것이 없는 오늘의 公共圖書館이 教育水準이 높아진 國民들에게 여전히 알맞는지 의문이다. 헤인즈가 말한 바와 같이<sup>14)</sup> 公共圖書館의 첫째가는 使命은 모든 社會員에게 讀書를 통한 教育의 機會를 提供하는 것이다. 教育의 實踐은 被教育者의 이전 成就度를 測定하는데서 始作한다. 그로부터 適合한 教育方法의 採擇이 可能한 것이다. 圖書館에 教育機能이 있고 그 被教育者되는 利用者의 教育水準이 變한다면 圖書館에도 類似한 節次, 變化가 있어야 한다.

### 3.1.5. 利用習性の 變化

다른 習性과 마찬가지로 利用者들이 圖書館資料를 利用하는 習性도 그것이 習性이 된 후에는 교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비록 圖書館 側에 곤란한 習性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不平이나 교정같은 것은 斷念하고 오히려 習性에 맞는 奉仕方法을 강구하는 것이 賢策일 것이다. 利用習性의 一般의 類型을 찾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利用者와의 密接한 접촉과 觀察을 통해 或은 本格的 調查 研究를 통해 特定 圖書館利用者들이 特定期間 나타내는 共通의 習性들을 分析해낸다는 것은 不可能한 일은 아닐 것이다. 極히 막연한 印象같은 것을 통해서도 20년 또는 30년전 利用者들에 比해 오늘의 圖書館出入者들의 습성은 많이 變한 것을 알 수 있다. 現代人은 몇 시간이고 圖書館에 머물며 資料를 파고 들 수 있는 時間과 마음의 여유가 없는듯하며 資料 全部보다 選擇된 資料를 찾는 경우가 많으며 原文보다 抄錄을 먼저 찾는 사람이 많은듯하다. 이것은 正確한 觀察이 아닐는지 모른다. 그렇지만 圖書館은 수시 適切한 方法을 써서 利用者 習性의 變化를 잘 分析하고 最大限

14) Helen E. Haines, *Living with Books: the Art of Book Selection*, 2d e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0, pp.15-28.

그것에 맞는 奉仕方法으로 自體를 調整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 3.2. 情報의 變化

前述한 바와 같이 圖書館이 社會의 한 從屬機關인 동시에 情報傳達機關임으로써 그로부터 오는 變化에 대한 압박이었다. 그 압박은 情報量의 增加, 情報의 細分化 및 情報媒體의 變化로 三大分할 수 있다.

#### 3.2.1. 情報量의 增加

오늘 날 情報의 “洪水”나 “爆發”이니 하는 말로 表現되는 情報量의 急増 추세는 15年을 單位로 한 倍增現象을 계속하고 있다.<sup>15)</sup> 이 추세의 問題性에 대한 學術界의 最初 反應은 1948年 런던의 英國 王立協會 主催 科學情報會議<sup>16)</sup>였다.

이런 종류로서는 最初의 國際會議였던 이 모임의 參席者들은 宣言文을 採擇하고 그 속에서 人間經驗의 總和는 增大하였으나 情報處理技術은 舊態依然함을 指摘하고 改善의 時急性을 호소하였다. 研究者들의 可用時間은 限定되어 있는데 必要한 情報가 방대한 資料 속에 묻혀 버려 文獻調査에 점점 더 많은 時間을 費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會議參席者들은 이러한 研究活動의 危機를 克服하기 위하여 情報의 再利用 能力을 開發하는 問題가 科學技術界에 던져진 最大 當面 課題라고 宣言하여 全世界에 이에 대한 注意를 喚起하였다. 이후 出版物 急増의 對備策은 學會 討論場이나 저어날을 통해 계속 論議되어 왔으며 圖書館界에서는 이를 새로운 要求로 받아들이고 適合한 奉仕스타인 創案에 힘써왔다.<sup>17)</sup> 結果로 各種 마이크로폼, 磁氣 테이프 記錄 등 새로운 形態의 資料가 도서관에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이런 特殊資料를 다루는 奉仕單位가 생겨나고 書誌奉仕, 索引作成, 情報檢索 등 非傳統的 奉仕部門이 新設 또는 強化되었다. 圖書館相互貸出組織도 出版物의 增加 추세와 깊은 關係가 있음은 勿論이다. 이렇듯 情報量의 增加(變化)는 圖書館奉仕方式의 修正을 結果하였다. 最近 圖書館內의 一連의 變化, 即 새로운 奉仕部門의

15) D. J. Price, *Little Science, Big Scien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3.

16) Royal Society Scientific Information Conference, 21 June-2 July, 1948, *Report and Papers submitted*, London, The Royal Society, 1948.

17) Joseph Becker and Robert M. Hayes,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Tools, Elements, Theories*, New York, Wiley, 1963, pp.6-20.

設置, 個人的 奉仕方法의 強化, 個個 圖書館奉仕限界의 伸張을 위한 圖書館 相互間의 協調組織 등이 部分的으로 或은 全的으로 情報量의 增加로 因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 3. 2. 2. 情報의 細分化

情報의 細分化는 바꿔 말하면 主題의 細分化이다. 社會가 複雜해짐에 따라 意思決定과 問題 解決도 複雜化되어 이것이 오늘 날 細分化(專門化)된 情報를 要求하게 된 것이다. 要求에 대한 응답으로 專門의 資料가 大量으로 生産된 것은 좋았으나 그 속에 많은 專門用語가 誕生하여 圖書館 안에 적지 않은 問題를 일으켰다. 專門用語의 難解性으로 말미암아 著者와 他 部門 設者(非專門家)사이의 對話가 어렵게되어 번역자의 中間役割이 必要하게 되었다. 또 主題背景이 없는 소위 一般司書들이 다루기 어려운 資料가 늘어나고, 細分化를 無限定 할 수 없는 主題標目表의 効用性을 顯著하게 低下시켰다.<sup>18)</sup> 情報의 細分化는 새로운 蓄積 및 檢索道具의 考案과 資料 利用過程에 非專門讀者의 理解를 위한 特別措置의 포함을 要求한다.

### 3. 2. 3. 情報傳達媒體의 變化

지난 수십년 동안 情報傳達媒體가 多樣化하고 質的으로 매우 向上되었음은 衆知의 事實이다. 오랫동안 間接情報傳達의 媒體는 소위 그래픽·레코오드로 文字나 圖表를 利用한 印刷物이었으며 大部分이 單行本形態이었다. 그러나 오늘 날 印刷資料는 主要 情報傳達媒體 중 하나에 不過하다. 音盤, 錄音 테이프, 비데오테이프, 映寫 필름, 슬라이드, 各種 마이크로폼, 그리고 急速히 普及되고있는 컴퓨터用 磁氣材料 등이 다 一長을 가진 現代의 重要 媒體들이다. 印刷資料만하더라도 新聞, 雜誌, 저어날 等 逐次刊行物을 비롯하여 技術報告, 팜프렛, 政府刊行物, 地圖, 樂譜 等 갖가지 形態의 資料가 學術用, 研究用, 參考(情報)用으로 單行本과 어깨를 나란히 圖書館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 情報傳達媒體의 多樣化가 結果한 資料形態의 多樣化는 單行本을 主資料로하던 傳統의 圖書館의 資料組織法과 奉仕 스타일에 混亂을 초래하였다. 카이터와 봉크는 司書들이 資料形態의 多樣化에 當황한 나머지 골

18) *Ibid.*, pp.37—9.

치 아픈 非圖書資料 處理 및 奉仕의 問題를 關門에서 막는 方法으로 그 選擇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개탄한 적이 있다.<sup>19)</sup> 問題는 회피할 것이 아니라 勇氣와 誠實性으로 對面하고 解決策을 찾아야 할 것이다. 情報傳達媒體 變化의 경우 도서관 방식을 媒體變化에 맞추어 變化시키는 方法 外에 해결은 없을 것이다.

### 3.3. 他 情報傳達機關과의 境界變動

圖書館의 이웃이며 어떤 意味에서 競爭關係를 가지는 他 情報傳達機關들이 그 影響領域을 擴大하여 傳統的 圖書館奉仕 分野를 浸蝕해 들어옴으로 圖書館奉仕의 變化가 不可避해지는 수가 있다. 오늘 날 그러한 機關으로 텔레비전 라디오 등 電波 미디어와 新聞, 雜誌 등 定期刊行物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定期刊行物은 圖書館에 收入되어 圖書館資料로 되는 것이지만, 特別히 新聞, 時事雜誌 등은 그 自體로 하나의 情報傳達機關 機能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소위 大衆傳達手段 중에서도 圖書館의 最大 競爭者는 텔레비전일 것이다. 사실 公共圖書館 領域의 많은 部分을 텔레비전이 이미 占領했다해서 과언이 아닐 것이다. 社會教育, 公民教育, 一般情報奉仕, 教養, 娛樂 등 分野의 프로그램이 成功的으로 視聽者를 誘引하고 있음을 본다. 텔레비전 出現前 이들 分野의 主役은 오랫동안 圖書館이었다. 이제 名作小說 內容은 텔레비전 畫面을 통해서도 드라마 형식으로 짧은 시간에 쉽고도 재미있게 經驗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圖書館에 가서 “오리지날”을 읽는 讀書家도 계속 存在한다. 그러나 現代의 바쁜 日常生活에서, 車를 타고 (開館時間 中에)가야 하는 도서관까지의 距離와 집안에서 (어느 때든지 그리고 편한 자세로)볼 수 있는 텔레비전의 條件差때문에 前者보다 後者の 利用度가 커짐은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다. 圖書館界에서도 이러한 추이를 굳이 外面할 必要는 없다고 본다. 社會의 必要는 그것을 充足시키기 위하여 어제까지 依存해온 機關을 버리고 오늘은 새 機關으로 바뀌 잡을 權利가 있음을 認定해야 할 것이다.

圖書館立場에서 볼 때 라디오와 映畫도 텔레비전과 類似한 位置에 있으나 兩者는 다 텔레비전 威勢에 눌려 昨今 斜陽길을 가는 感이 있다. 新聞, 時事

19) Carter and Bonk, *op. cit.*, p.92.

雜誌等은 印刷術의 發達, 印刷材料의 大量 供給, 文盲率 減少 및 商業主義와의 結合 等으로 社會 구석 구석까지 浸透되어 역시 傳統的 圖書館領域이었던 社會教育, 公民教育, 生活情報提供, 敎養, 娛樂機能을 遂行하고 있다. 新聞과 雜誌는 테레비전의 一時性을 克服한 利點때문에 테레비전 威勢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번영을 계속하고 있다.

1940年代에 出現한 컴퓨터 또한 圖書館과 特別한 關係를 맺고 있다. 資料를 蓄積하였다가 必要에 따라 檢索 利用한다는 點에있어 컴퓨터는 그 自體가 하나의 圖書館이지만 圖書館과의 關係는 처음부터 경쟁의 立場이 아닌 從屬 補完의인 것이었다. 일찍부터 圖書館人들은 資料處理에 있어서 컴퓨터의 高速, 高性能을 注目하여 여러 現代圖書館 問題解決을 이에 期待하고 研究해 왔다. 그 결과 오늘 날 많은 外國圖書館에서는 컴퓨터가 뗄 수 없는 一部化하여 重要한 役割을 擔當하게 되었다.<sup>20)</sup>

어떤 機關이나 그 對社會 機能에 있어 傳統의 承繼 및 發展, 保守主義等이 다 소중한 원칙인줄 안다. 그러나 無理한 傳統에의 執着보다는 時代의 合理性을 아울러 追求하며 傳統의 現代의 해석에 伸縮性을 잃지 않는 것이 重要할 것이다. 테레비전 等 他 情報傳達機關이 종래 도서관에서 행한 몇가지 機能을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이 立證되면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질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社會는 自體의 必要를 充足시키기 위해 어떤 機關이라도 선택하거나 변경할 權利를 保有하며, 또 社會從屬機關의 모든 機能은 自體의 保存이나 擴張이 아니라 社會에 대한 寄與度 基準에서 評價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社會의 어떤 必要 充足에 있어 도서관에 대한 依存도가 줄어들고 他 情報傳達機關이 그 分野에서 脚光을 받기 시작한다면 圖書館은 現實을 솔직히 是認하고 그 分野프로그램을 줄이기 시작하는 勇氣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 대신 새 時代의 可能性을 다른 分野에서 (물론 社會의 情報 전달기관이라는 한계안에서) 발견하여 母機關인 社會全體의 大目的 成就에 이바지하기 위한 圖書館奉仕의 조정(變化)을 피해야 할 것이다. 圖書館이 만일 既存分野의 保存이라는 對內的 問題에 몰몰하여 對社會 奉仕라는 誕生 目的에 소홀

20) Robert M. Hayes and Joseph Becker, *Handbook of Data Processing for Libraries*, New York, Wiley, 1970, pp.27-56.

한다면 이는 社會機關으로서의 타락의 시작인 것이다. 모든 情報傳達機關은 各己 特有한 方法과 制限條件을 가지고 사실상 한가지 社會的 必要, 即 社會內的 個人, 集團 사이에 情報를 交流시켜 이들을 묶어 한 社會로 成立시키면서 共同目標成就에 動員해야 하는 必要를 充足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各種 情報傳達機關의 機能을 區劃하는 境界는 애매하며, 때로는 중복되고, 또 時代에 따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는 變形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各機關은 한 두 가지 固有性으로 해서 그 存在 價値를 쉽사리 잃지는 않는 것이다. 예컨대 情報傳達에 있어서 텔레비전, 新聞 등이 非特定多數에 대한 一般情報의 살포식 提供에 長點이 있다면 圖書館은 資料檢索 또는 情報加工을 通하여 特定利用者의 特定 情報要求에 응답하는데 長點이 있다. 이러한 固有性의 開發은 경쟁기관과의 境界 變動이 있는 時期에 그 機關의 社會的 効用性을 높이는 捷徑일 뿐 아니라 社會 全體에도 有益한 것이다. 도서관이 境界變動을 適時에 探知하고 곧 自體의 對 社會 活動에 調整 措置를 취함으로써 언제나 새로운 圖書館을 維持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 3. 4. 圖書館相互協調關係

圖書館奉仕의 變化를 決定하는 다른 要因으로 圖書館相互協調關係의 成立 또는 變化를 들 수 있다. 이런 例의 가장 單純한 形態는 아마도 同一 地域內的 館種이 다른 두 圖書館間的 協調關係일 것이다. 가령 이 두 도서관이 公共圖書館과 大學圖書館이고 그 協調 內容이 두 도서관의 基本利用者들(公共圖書館의 地域社會住民, 大學圖書館의 學生과 教授)에게 어느 도서관이나 자유로히 利用토록 허용하는 것이라면 兩 圖書館 共히 그 奉仕內容을 修正할 必要가 있다. 即 공공도서관에서는 專門 學術資料收入을 最小限度로 줄이고 參考室을 축소하고 一般教養 및 娛樂物을 增점 구입하고 家庭貸出制를 강화할 것이다.

한편 大學도서관에서는 소위 “公共圖書館資料”의 收入 및 奉仕活動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거기서 절약되는 돈과 人力을 轉用하여 教育 및 研究支援 奉仕를 강화할 것이다. 오늘 날 도서관 상호대환제도의 普及 및 強化로 많은 中小特殊圖書館은 단지 接近窗口(access point)구실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大圖書館은 그 자료가 미치는 범위로 볼 때 地方, 國家, 또는 世界圖書館이

되어버렸다.<sup>21)</sup> 사실상 特殊圖書館은 그 機能으로 볼 때 大學圖書館과 類似한 것이다. 卽 이들은 調査 研究나 問題解決에 從事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專門 知識을 吸收하려는 사람들을 奉仕對象으로 한다. 그렇지만 이들 圖書館은 오늘 날 基本利用者들의 專門知識 更新을 위한 速報文獻 程度를 備置하고 大圖書館 所藏 學術資料에의 接近窓口로서 더 큰 自負心을 가지는 것이다. 이들 圖書館이 學術資料 保存의 社會的 責任을 大圖書館에 轉嫁함으로 制限된 人力과 豫算을 가지고 能히 効率的 圖書館奉仕를 提供할 때 아무도 이들의 社會的 자료보존책임의 外面을 비난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도서관 상호협조 관계를 잘 檢討하여 基本利用者에게 最大限 有利하도록 自體奉仕의 內容과 體制를 變化시키는 것은 館長의 責任일 것이다.

### 3.5. 圖書館學理論의 發達

圖書館이란 “圖書 및 그와 類似한 資料를 蒐集, 整理, 保管하여 讀書, 調査, 研究, 參考, 趣味, 娛樂에 이바지할 目的으로 組織 運營되는 施設<sup>22)</sup>이다. 여기 “圖書 및 그와 類似한 資料”라 함은 情報를 記錄化한 것이므로 도서관은 本質的으로 情報를 다루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最近 情報學의 出現으로 情報의 內面的 性質(properties)과 外面的으로 나타나는 行動(behavior)에 대한 研究가 本格化 되어<sup>23)</sup> 早晚間 그 一般성과 原理가 들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圖書館學의 研究가 주로 要求의 調査와 그것을 充足시키는 도서관방법론 발견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정보의 성질과 행동원리에 입각한 효율적 도서관 봉사조직의 모형이 많이 다루어질 것으로 또한 예상된다.

한편 브로오드필드 以來의 “情報傳達 立場으로부터의 圖書館學研究”<sup>24)</sup>가 最近 시스템 理論 分野의 發見들과 結合하여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서의 도서관을 理論化하려하고 있다.<sup>25)</sup> 이러한 情報學과 圖書館 시스템論 研究의 結果들이 圖書館奉仕의 變化에 영향을 줌은 당연한 일이다. 만일 도서관이

21) Vern M. Pings, "The Library as a Social Agency, Response-to Social Change,"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 31, no. 3 (May 1970), p.176.

22) 韓國圖書館協會, 圖書館用語集, 서울, 1966, p.29.

23) L. M. Klempner, "A United Curriculum for Information Science,"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 30, no. 4 (July 1969), p.335.

24) A. Broadfield, *A Philosophy of Librarianship*, London, 1949.

25) 植名六郎, *op. cit.*, pp.136-67.



론의 확립이 個個 圖書館의 發展的 變化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을 全面的 研究는 一場 徒勞요 社會的 浪費일 것이다.

圖書館學 理論과 關係는 있으나 그 位置가 반드시 一致한다고는 볼 수 없는 要因 하나를 變의상 여기 附加한다. 도서관관계 법 속에 明示된 圖書館 目的의 定義와 修正이 그것이다. 圖書館은 社會從屬機關으로서 궁극적으로는 社會目標에 이바지하는 것이지만 直接的으로는 圖書館奉仕의 進行方向을 設定(成文化)한 圖書館目標에 基礎하여 對社會 機能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圖書館奉仕의 決定要因 중에서 도서관 목표를 뺄 수 없다. 圖書館奉仕의 變化 決定要因으로서의 圖書館目標을 論할 때 問題되는 것은 複雜한 改正節次때문에 時에 맞지 않는 項이 남아 있어 時流에 맞는 圖書館 運用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法文의 이러한 性格을 감안하여 그 해석에 신축성을 적용함이 옳을 것이다. 다음의 예는 이런 立場의 正當性을 支持하는 例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 圖書館法<sup>26)</sup>第2條는 圖書館의 目的을 세가지 基本目的으로 못 박고 있다.

가. 調查 研究

나. 教育

다. 레크리에이션

圖書館의 調查研究 支援 目的이 첫 자리에 올라 그 比較的 重要性을 나타낸 사실에 異議가 있을 수 없다. 오늘 날 세계는, 工業原料와 에너지에 依해 國力이 決定되던 소위 物質文明時代는 가고 무엇을 만들줄 모르나에 依해 世界를 支配하는 情報化時代가 왔다. 그러므로 高等頭腦 養成을 위한 大學教育과 調查研究事業은 어느 나라에서나 最大 課題가운데 하나가 되었으며, 結果的으로 調查研究活動이 急速히 擴大되어 가고 있다. 調查研究는 그 本質上 해당분야의 過去文獻 檢討를 必須過程으로 삼는 바 過去文獻의 網羅的, 組織的 蓄積에 있어 圖書館을 능가할 社會的 裝置는 아직 없다.<sup>27)</sup> 調查研究 活動이 擴大一路이므로 이를 支援하는 圖書館 프로그램의 比例한 擴大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調查研究 支援目的은 계속 有効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26) 法律第 1424號(1963年 10月 28日公布)

27) Haines, *op. cit.*, p.16.

圖書館의 教育目的은 여러 世紀동안 지너온 目的 중 하나이다. 아직 책이 귀하고 教育機關이 不足했던 時代에 도서관은 이 目的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그러나 오늘 날 책은 “洪水”처럼 줄을 이어 出版社 門을 흘러나오고 있으며 教育의 機會는 넓어졌다. 學校, 非學校教育機關을 합해 8.15前에 비하면 실로 雲泥의 差를 實感한다. 한편 公民教育, 社會教育, 教養 等은 텔레비전, 라디오, 新聞을 통해서 더 많이 행해지고 있으며, 어떤 意味에서 더 效果의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때 도서관의 教育目的이 如前한 重要性을 維持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調査 研究 支援이나 教育目的의 合法性은 그런대로 認定한다해도 마지막 레크리에이션 目的은 時에 맞지않는 例가 아닌가 생각한다. 圖書館에서 제공하는 레크리에이션이라면 大衆小說, 유머감, 傳記, 探險記 等 레크리에이션用 圖書를 읽음으로 얻어지는 것을 말한다. 1876年度 美國聯邦教育局報告書에서 퍼킨스(F.B.Perkins)는 도서관 책을 읽는 사람의 大部分은 興味를 추구하는 어린이들과 休息中에 있는 어른들이니 읽기 어려운 古典이나 學術書籍보다 그들의 要求에 맞는 娛樂書 收集에 主力해야한다고 하였다. 또 도서관은 시청 공원관리과 (즉 오락기관)와 같다고하는 사람도 있다.<sup>28)</sup> 그러나 오늘 날 오락을 위해 도서관으로 가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맙다 할는지 의문이다. 텔레비전, 教養 및 娛樂雜誌의 家庭購讀으로 이 方向의 欲求가 대체로 充足되고있으며 또 外國에서는 값싼 普及版(Paperbacked edition) 娛樂書가 많아 대개의 경우 圖書館까지 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 레크리에이션의 傾向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스포츠, 파티, 텔레비전, 영화 등 種類가 多樣化되었으며 특히 “大衆社會”의 영향으로 讀書과 같은 個人的 레크리에이션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결국 圖書館의 레크리에이션 目的은 그 의미가 소멸되었거나 소멸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社會가 複雜해짐에 따라 意思決定과 문제해결에 필요한 情報需要가 社會各分野에 增加해간다는 사실은 앞에서 지적했지만 이 需要를 充足시킬 適任機關은 무엇일까? 非特定多數를 위한 一般(生活)情報提供의 責任은 텔레비

28) Carter and Bonk, *op. cit.*, p.8.

전, 新聞 등 매스·미디어와 나누어 진다해도 個人的 情報奉仕에 대한 圖書館의 責任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sup>29)</sup> 다만 情報要求는 특정사항에 대한 質問形式으로 제출되는 것이므로 傳統的 圖書館 방식대로 해당 자료를 提供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資料內容을 처리하여 간결한 答의 形式으로 주어 야하는 불편이 있기는 하지만 이점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실제로 1943년에 美國圖書館協會가 마련한 “戰後公共圖書館基準”<sup>30)</sup> 속에 定義된 公共圖書館의 目的과 1950년의 리이 報告書<sup>31)</sup> 속에 定義된 美國공공도서관의 목적은 다 도서관의 情報奉仕目的을 明示하고 있다. 圖書館法속의 目的에서 情報奉仕目的의 누락은 오늘 韓國의 주변여건으로 보아 非現實的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요컨대 圖書館奉仕의 直接的 근거는 法文으로 明示된 圖書館目的이므로 그 目的이 變化의 決定要因이 되는 것은 分明하나 法改正의 지연성으로 그 해석에는 신축성있는 현실 참작이 適用되어야한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 4. 結 論

圖書館은 社會從屬機關이므로 그 繼續의 存在를 正當化하기 위해서는 不斷히 自體의 社會的 効用성을 評價하여 새로와지며 時流에 맞는 奉仕를 해야 한다. 오늘 날 急變하는 世界 속에서 圖書館이 바로 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圖書館奉仕의 變化를 決定하는 要因인가를 우선 알아야한다. 圖書館奉仕는 要求에 응답하여 受動的으로 시작되므로 時代에 따라 그 要求가 변할 때 자연 도서관봉사도 변하게 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 도서관봉사의 變化를 決定하는 要因은 도서관에 대한 社會的 要求라고 할 수 있으나 그 要求를 다시 分析하면 社會 新興分野의 不滿, 資料比率의 變化에서 오는 不安定, 研究方法의 變化에서 오는 利用者들의 불편, 教育水準의 變化에서 오는 새로운 要求, 利用習性 變化에서 오는 불편 등임을 알 수 있다.

29) Joseph C. Donohue, "Planning for a Community Information Center," *Library Journal*, vol. 97, no. 18 (October 15, 1972), pp.3284-8.

30) *Post-War Standard for Public Libraries*: prepared by the Committee on Post-War Planning of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Carlton Burns Joeckel, Chairman,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43.

31) Robert D. Leigh, *The Public Library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0. (The general report of the Public Library Inquiry.)

圖書館은 社會, 從屬機關인 동시에 情報傳達機關이므로 情報量의 增加 情報의 細分化 情報傳達媒體의 變化가 또한 圖書館奉仕 特히 그 방식의 變化에 作用한다.

圖書館은 여러 情報傳達機關中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同一한 社會的 必要를 充足시키는데 있어 이웃 機關과 때로 경쟁관계를 형성하여 그 境界上에 변동이 일어나는 수가 있다. 즉 다른 情報傳達機關들이 그 영향 영역을 擴大하여 傳統的 圖書館奉仕分野를 浸蝕해 들어오므로 圖書館 側 調整이 不可避해지는 수가 있다. 그러므로 他 情報傳達機關과의 境界變動이 도서관봉사 변화의 결정적 요인이 되는 수가 있다.

個個 圖書館의 制限條件을 克服하기위하여 組織되는 圖書館相互協調 關係를 効果的으로 活用하며 이에 自體의 봉사체제를 맞추면 基本利用者들에게 매우 有利한 奉仕를 할 수 있다. 따라서 圖書館相互協調關係의 內容과 方法이 또한 決定要因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情報學과 圖書館學의 理論的 研究의 結果들이 圖書館奉仕의 變化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圖書館關係法 속에 明示된 圖書館 目的이 또한 圖書館奉仕의 變化를 決定하는 한 要因이 될 수 있다.

---

A Study on the Determining Factors  
of Change in Library Service

Sung-Jin Choi\*

<ABSTRACT>

The library as a social agency must study and evaluate its effectiveness and seek to improve its service for achieving the external objectives for which it was created. The study is an attempt to define the determining factors involved in change in library service. Library service evolves as a consequence of social need, which comprises unconventional demands of emerging areas in the subject ratio of literature, change in methods of research, change in the educational level of the community, and change in the user behavior. Since the library is an agency of communication, growth and specialization of information, and increase in variety of information media have effects on library service. The library is one of the many communication agencies in society, and increase or decrease in their programs can be determining factors of change in library service. Today, libraries depend more and more upon interlibrary cooperation to allow them to overcome their limitation in resources and time, and they can bring about changes in their service by adjusting themselves to the interlibrary cooperation arrangements available. Finally, library service is rendered as a result of theorizing as to what the library might or should do, and naturally theories or change in them may be determining factors of library service.

---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Library Science, Sung Kyun Kwan University.